

Jan-Werner Müller, 2010, "The Cold War and the Intellectual History of the Late Twentieth Century," Melvyn P. Leffler and Odd Arne Westad eds., *The Cambridge History of the Cold War, Vol. III: Endings*, New York: Cambridge University Press.

- 1970년대 중반: 서구에서 위기의식이 최고조에 다다름

→ 오일쇼크/스태그플레이션, 테러리즘, 사회운동/정치적 갈등...

→ 1968: 당대 사회문화격변의 상징

→ 서구 전후 컨센서스 해체: 기존의 코포라티즘-대량생산-사회평화-소비주의 체제붕괴

Q: 어떻게 이러한 서구의 후기자본주의 정당성위기(Habermas)의 시대가 이후 승리주의(Fukuyama) 혹은 신자유주의(Hayek)의 시대로 이행할 수 있었는가?

### The Crisis of Democracy

- Trilateral Commission의 "민주주의 위기" 보고서 (1975)

→ 당대 서구질서위기에 대한 대응: 지나친 대정부 요구/참여가 통치의 위기 야기

→ 경제정책변화, 국가-사회변경 등 국내적 해법요구

- 정책지향적 지식인/테크노크라트 옹호론 ⇔ 가치지향적 지식인

a. 니콜라스 루만의 "사회체계이론"

→ 독자적인 논리를 갖는 체계간의 상호간섭은 위험

→ (좌파)지식인들의 부당한 참여요구는 복잡한 현대사회에 손상초래

→ 정부사무는 관료들에게 수탁필요

b. 위르겐 하버마스: 당대 사민주의적 열망대변

→ "생활세계" vs. 시장과 관료제의 도구주의

→ 탈식민화 추구: 사회운동, 공론장에서 지식인의 저항

### France's Anti-Totalitarian Moment

- 68이후 신좌파 지식인들

→ 반관료주의, 개인-집단의 자율성 강조

- 정통 맑스주의와 거리두기
- 70년대 중반 프랑스에서 “전체주의 논쟁” 시작
  - 전후 사회를 양분해온 드골주의와 공산당 모두 몰락
  - 슬제니친 쇼크로 새롭게 반전체주의/반공 지식인 부상
- ex) “신철학자들” (Marxism=Hegelian=권위주의), 프랑소아 푸레의 수정주의적 프랑스 혁명론...
- 좌파의 진보주의/근대화 이상이 붕괴
  - 근대에 대한 좌파적 서사전체가 침식: 프랑스 혁명이라는 역사적 준거소멸 (Foucault)
- 1980년 사르트르 사망 = 보편적 지식인 모델의 죽음 ⇔ 레이몽 아롱 회고록 (1982) 인기
- 81년 사회당-공산당 연정의 실패: 84년 미테랑의 우경화, 정책 U-turn

### **The Neoconservative Moment – in the United States and Elsewhere**

- 70년대 뉴욕 지성계에 “네오콘” 부상
  - 정치적 환멸의 산물: 이전 트로츠키주의자들이 냉전반공투사로 전향
- 네오콘 지적 형성의 핵심계기들
  - 급진주의 학생운동: 미국이라는 관념 공격 + 존슨의 “위대한 사회” 프로그램 실패
- 70년대 네오콘이란 이름이 구축: 미디어를 이용, 미국민족주의/친자본적 입장 설파
- 독자적 외교독트린 구축: Jeane Kirkpatrick의 이중잣대론
  - 좌익 전체주의 정권 vs. 우익 권위주의 정권: 카터의 인권외교 비판
- 인간본성에 회의적인 유럽정통보수주의 혹은 반정부적 자유지상주의와 상이
  - 정치의 우선성 강조
  - 희망적-미래지향적 감성, 근대문화와 테크놀로지 긍정
- 신보수주의는 미국적 현상인가?
  - Y: 보수적 싱크탱크/재단들의 정책영향력
  - N: 신좌파에 반대하며 우파로 전향한 사민주의자들

### The End of the Social Democratic Consensus

- 70년대말~80년대 기성 사민주의에 대한 공격심화
  - 신좌파 + 신자유주의 + 탈근대주의
- 신좌파의 유산: 페미니즘, 환경운동, 반핵평화운동 → 종말론적 우려표명
- 하버마스/다렌도르프의 진단: 유토피아-사민주의-변혁의 열정 소멸
  - a. 탈근대주의: 거대서사-진보의 종식선언
  - b. 네오콘: 자본주의-가족-민족국가의 변혁불가능성 강조

### The Descent from Mont Pèlerin

- 고전자유주의의 부활: 사민주의에 대한 최대위협
  - 새로운 "유토피아 에너지" 생산: 무제한적 시장과 강한 국가의 동시 찬양
- 하이예크의 몽펠랭회 창설(1947)
  - 관념 전쟁에서의 엘리트 돌격대: "자유를 위한 전사양성", 영미권에서 큰 영향력 발휘
  - 개입주의 비판: 중앙지령경제는 개인들의 지식활용X, 경제계획은 결국 전체주의로 귀결
  - 방법론적 개인주의: Thatcher, "사회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"
  - 강력한 국가: 사회로부터의 요구(특별이익집단) 거부능력 중요, 15년 임기의 소수상원수립
- 하이예크의 영향력 증대
  - 서방의 70년대 통치위기에 대한 해법제시
  - 동구의 반체제 인사들에게 인기
  - 미국에서는 로버트 노직의 자유지상주의라는 철학적 토대까지 형성
  - ⇔ 대륙유럽에서는 여전히 사민주의 컨센서스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다수

### The Politics of Anti-Politics under Post-Totalitarianism

- 동구권 반체제 지식인들의 정치적 영향력 증대
  - 정권들이 자신의 약속을 지키도록 요구하는 전략실행 ex) 헬싱키 협정준수요구

- 공산당 외의 정치조직수립이 금지된 상황: 非정치 혹은 反정치 세력으로 자신을 포장
- 당대 서구지식인들과 유사하게 反전체주의라는 문제의식 공유
  - 철권통치아래 어떻게 “생활세계”를 보호, 회복할 것인가?
- 바츨라프 하벨: 현상학적 전통 (Heidegger & Husserl)에 기반한 근대성 비판
  - 근대의 합리주의적 휴머니즘, 인간중심주의, 테크놀로지의존성 등을 비판
  - 국가사회주의는 이러한 근대성의 극단적 형태
  - 서구의 자유민주주의도 초월시도: 의회민주주의의 회복은 존재질서혁명의 시작점일 뿐
- 한편 동서가 공유한 power politics/핵무기정치를 비판하는 또 다른 反정치조류도 존재

### **A Late Liberal Triumph?**

- 80년대는 낙관주의의 시대?
    - 사실 당대엔 자기회의의 분위기: 미국패권하락론(P. Kennedy), Nuclear Holocaust...
  - 후쿠야마의 역사종언론도 승리주의와는 거리 존재
    - Post-history = 니체의 “마지막 인간들”이 사는 시대 = “sad time”
  - 1989 이후 시대는 실제 승리주의의 묘사와는 상이한 국면
    - 미소대결이외의 컨텍스트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승리X
      - ex) 서구에서 문화적 비관론 지속, 천안문사태, 이란의 신정지속...
  - 냉전기 유럽에서의 지적 논쟁은 내향적 혹은 국지적
    - 미소간 경쟁의 맥락에서 유럽은 세계에서 물러나 있을 “특권”보유
- ⇔ 1989로 그러한 특권이 소멸

**부록: 포퓰리즘/트럼프 현상에 대한 윌러의 최근 견해들<sup>1</sup>**

- 포퓰리스트의 주된 표식 = 자신만이 인민을 대변한다고 주장
  - 도덕적 기준에서 인민의 범위를 배타적으로 설정: 반대자는 “진짜” 인민 X
  - 정치공동체내의 멤버십문제를 제기
- “인민의 의지”를 대변한다는 픽션
  - 단일의, 동질적인, 올바른 인민의 구성
  - 음모이론: 부패한 엘리트가 인민을 억압 중 → 선거불복 레토릭: 진짜 인민 = “침묵하는 다수”
- 포퓰리스트 = 현대사회의 다원성 부정
  - 진짜 인민의 상징적 재현-이상에 모두가 동조할 것을 명령
  - 배타주의적 정체성 정치에 기반한 반대원주의
  - 동질성 회복이 기존의 사회정치문제를 해결해 줄 것
- 동질적인 순수한 인민의 환상 =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위협
  - 인민은 언제나 “복수” 형태
  - 민주주의의 가치로서 평등은 동일성을 의미X
- 트럼프의 정치는 이상의 포퓰리즘 정의에 정확히 부합
  - “White nationalist moment”: 소수자들을 중상하며 다수자들이 희생자라고 묘사
  - 백인 정체성 동원의 정치학을 통해 사회경제적 문제해결 약속
- 그러나 힐러리처럼 트럼프 지지들을 구제받지 못할 개탄스러운 자들로 비난하는 것은 재앙적 결과를 초래
  - 본질적으로 반대원주의적인 인민주의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다원주의적 집단 정체성의 개념화 필요

---

<sup>1</sup> *What is Populism?* Philadelphia: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, 2016; “How to Think – and How Not to Think – about Populism,” *Comparative Politics Newsletter*, 26(2), 2016; “A Majority of ‘Deplorables’?” *Project Syndicate*, Nov. 10, 2016.